

신청사에서 익산 새 시대 개막

시민의 날 맞아 새 도시브랜드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GREAT) 익산' 발표

익산시가 새로운 도시브랜드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GREAT) 익산'을 발표했다.

익산시가 새 도시브랜드와 신청사를 한(韓)문화 발상지로서 익산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7일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3일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신청사가 건립된 올해 시민의 날을 맞아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선포한다"며 "한민족의 근간을 이룬 한문화 계승지로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올해 54년 만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부서별 입주를 시작했다. 아직 2단계 공사가 남아 있지만 사무 공간 조성이 먼저 완료된 만큼 이달 안으로 여러 청사에 분산돼 있던 부서들이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된다.

이와 관련 정현을 시장은 "신청사는 단순히 건물 하나가 완공됐다는 차원이 아니고, 익산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변화에 발맞춰 시는 올해부터 시민의 날을 익산·이리 통합일인 5월 10일에서 개천절인 10월 3일로 옮겼다. 사실 익산과 이리가 통합되기 이전 익산 군민의 날은 10월 3일이었다.



익산시가 새 도시브랜드와 신청사를 한(韓)문화 발상지로서 익산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7일 밝혔다.

익산에서는 매년 이날에 맞춰 마한 민속대전이 열리기도 했다.

새로운 도시브랜드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GREAT) 익산'은 천년고도 역사와 문화의 경이로움을 넘어 고조선과 마한, 백제가 이어지는 한문화 그리고 대한국호의 발상지를 나타낸다.

도시브랜드는 '그레이트(GREAT)의 G와, 힘이 있는 녹색 정일도시를 상징하는 '원표(·)'를 바탕으로 기획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 캐릭터인 서동·선화도 약 20년 만에 현대적이고 쾌활한 분위기로 변신했다.

시는 신청사 내부에도 도시브랜드를 적극 활용했다. 특히 다양한 행사와 기념품 등에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캐릭터를 적용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고조선에서 시작된 한문화 발상지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역사문화도시 익산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 원도심 침수, 하수관 점검해야”

강임준 시장, 기후 위기 대비해 내년 4월까지 사업 마무리 강조

강임준 군산시장은 7일 간부회의에서 기후 위기에 대비한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내년 4월까지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임준 시장은 “문화동 등 일부 원도심지역의 하수관이 불량하다는 의견이 있고, 빗물받이가 부실한 상황”이라며 내년 봄철이 오기 전에 우수관 정비에 예산을 투자할 것을 지시했다.

결산 추경을 세워서 내년 잠마철 이전에 원도심지역의 부실한 우수관과 빗물받이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그동안 군산시는 변화하는 기후 상황과 지역 여건에 대응하고 하수도 기반 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추진해왔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군산시 물관리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써, 20년 단위로 내다보고 5년마다 재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춰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착수한 '군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을 반영해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상수도 공급중단에 '긴급 처방'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 개최... 용담댐 원수 공급 받기로 협의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아수계의 물 부족으로 익산시에 상수원 공급을 중단했다.

익산시는 상수도 공급중단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우선 용담호 용수를 공급받는 긴급처방에 나섰다.

7일 익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아수계의 가뭄으로 저수율이 급격히 낮아져 농업용수 공급을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대아수계를 상수원으로 하는 자체정수장(33%)과 용담호에서 공급되는 광역상수도(67%)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대아수계를 통한 원수가 차단되면 33%가량의 시민에게 공급되는 상수도

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익산시는 대체 상수원 확보를 위해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전북특별자치도,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아수계에서 공급받던 하루 11만 8,000톤의 원수를 용담호에서 공급받아 신홍정수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급해 상수도 중단사태를 차단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신홍정수장까지 약 28km 길이의 대간선 수로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용담호에서 공급받은 원수 유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시설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군산시는 오는 11일부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은 연령대·대상자별로 나눠 차례대로 실시하며, △10월 11일: 75세 이상·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10월 15일: 70~74세 △10월 18일: 65~69세 순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65세 이상은 같은 날 접종 부위를 달리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특히 군산시는 14~64세 취약계층에서 실시하던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자체 예산을 마련해 19~59세 취약계층, 14~18세 및 60~64세 군산시민으로 확대 시행한다.



19~59세 취약계층은 10월 15일부터, 14~18세 및 60~64세 군산시민은 10월 22일부터 접종 가능하며, 증명서류(신분증, 주민등록초본)를 지참하여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소 예방접종실(☎063-454-4950)로 하면 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문화재단, 품의오케스트라 예비거점기관 공모 선정

군산문화재단(이사장 강임준, 이하 재단)은 7일 2024 품의 오케스트라 예비거점기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품의 오케스트라 예비거점기관 공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포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7월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인터뷰 심사의 절차를 거쳤으며, 군산을 포함한 전국 5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재단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사업 운영전략을 수립하는 보육 기간으로 정했으며, 신규거점기관 전환 심사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예비 거점기관 기간동안 재단은 지역 자원 수집 및 협력 관계망 구축, 교육 방향 기획, 선진기관 현장답사, 사업 지원 확립 등 신규거점기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문화재단 문화예술포교육지원팀 (☎063-443-4804)에 문의한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2024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군산시는 7일 신원식 부시장 주재로 2024년 제6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참석은 신 부시장 외에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으며 총 12건을 심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가 의결한 6건의 심의안건인 △선양동 219번지(청년마을 공유주택 조성사업) △서수면 마동리 산9-3 번지 외 1필지(토지 매각) △어업지도선(전북209호) 대체건조 △나포면 서포리 산21-66 번지 일원(서해안 고속도로 문화관광홍보 집광관 제작 설치) △조촌동 859-13 번지(군산시의회청사 건립사업) △서수면 마동리 산9-3 번지 외 1필지(토지 매각)에 대해 집중적인 심의와 자문을 진행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 '1시민 1행복 프로젝트' ... 삶의 질 UP

약기·미술·생활체육·정원·자원봉사 등... 다양한 취미생활 지원 '큰 호응'

"나를 위한 온전한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 행복합니다."

문화도시 익산시의 '1시민 1행복정책'이 시민들의 삶의 질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익산시는 시민의 행복을 찾아주는 특별한 사색이 바른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심리적 만족과 여유를 선물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1시민 1행복정책'은 시민의 개인 취미 생활을 지원하는 익산시민의 특수 사색이다. '1시민 1약기'로 시작된 이 사업은 미술과 체육, 정원가꾸기, 자원봉사, 고전 읽기까지 그 영역을 점차 넓히고 있다.

우선 2022년 가장 먼저 시작된 '1시민 1약기'는 친구, 가족, 지인 등과 팀을 꾸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약기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기 강습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기존 강습 방식에 대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느꼈던 시민들에게 많은 인

기를 얻고 있다.

실제 앞서 상반기 사업에는 25개 수강팀을 모집하는데 70개 팀, 417명이 신청해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반기에도 27개 팀에서 166명이 약기 강습을 받고 있다.

시는 강습생들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버스킹 공연, 약기 발표회 등 갖고있는 실력을 뽐내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 시는 내년부터 수강기간을 받기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강사 수당을 적정하게 인상하는 등 시민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시민 1미술' 역시 많은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안기고 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0팀, 268명이 미술 수업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날 270여 점을 내놓은 작

품전시회와 함께 캐리커처, 자개 스마트북 만들기, 무드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1시민 1생활체육'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육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헬스나 수영, 에어로빅, 탁구,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등 13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1시민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 자원봉사 인적망을 촘촘하게 구성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제도도 추진한다. 지난날 기준으로 익산시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률은 28%로 전체 봉사자 933명 중 266명에 달한다.

녹색정원도시 익산 조성을 위한 '1시민 1정원'도 시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있다. 시는 계절꽃 단지과 꽃바람 정원, 우리 동네 어울림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통해 지역 정원 디자인을 양성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